

칼럼



### 『간양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11월 11일(금), 영광군 영광문화원에서 수은강향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3회 강향문화제의 일환(一環)으로 제9회 수은강향선생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수은(暉隱) 강향(姜沆, 1567~1618년) 선생은 정유재란의 1597년(선조 30년) 9월 23일, 고향 영광군 해상에서 함께 피난 떠났다가 헤어진 아버지의 배를 찾으러 다니는 도중에 왜적(倭賊)에게 잡혀갔다. 일본에서 2년 6개월 포로생활을 하다가 1600년 4월 2일 귀국길에 올라서 5월 19일 부산포에 도착했다.

강향은 24세(1593년)에 문과에 급제했지만, 30세에 전쟁 포로가 되어 세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생환 후에는 공조좌랑, 형조좌랑을 지낸 문신이다. 한참 청운의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집락군 왜군 포로가 되는 수난을 당했다는 데에 주목한다. 더구나 당시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전국시대 직후의 심나라 적국 일본에 끌려가는 심정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감과 절망감이 앞설 수도 있다. 말 못할 수모와 고뇌, 불면의 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끌려간 포로 신분으로 적국 지식인들에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유교(주자학)를 가르쳐 주고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걸출한 젊은 영웅이다. 강향은 학문과 인품에서 적국의 문부(文武) 지배층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선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예의와 인간에 보다는 힘과 탐욕이 지배하는 무지막직한 어두운 중세시대의 전쟁포로로서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에 일본에 끌려간 포로는 약 9만~14만명이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6,300여 명이다. 포로들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실기로 남겨 전해지는 것은 강향의 『간양록(看羊錄)』, 노인(魯認, 1566~1622)의 『금계일기(錦溪日記)』, 정경득(鄭慶得, 1569~1630)의 『만사록(萬死錄)』, 정희득(鄭希得, 1575~1640)의 『월봉해상록(月峯海上錄)』, 정호인(鄭好仁, 1579~?)의 『정유 피란기(丁酉 避亂記)』 등 다섯 편의 작품이 있다. 이 중에서 강향의 『간양록』이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간양록』은 16세기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역사, 지리, 풍토, 습속, 문학, 유학(儒學) 등 학문을 망라해서 객관적으로 적어 놓은 최초

의 종합 체험 작품집이다. 강향은 왜적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신주(神主)를 잃어버리고, 이후 바다 위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며,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 인간적인 극한의 고통과 한(恨)이 피 땀은 젊은 강향을 단련시켜서 단일한 포로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지 안했을 것이다.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김숙희 교수(전남대)의 주제 발표 논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간양록(간거록)』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토론자로 참가했다. 자신을 죽지 못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강향은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으로 『간양록』을 『간거록(巾車錄)』이라고 적었다.

『간양록』은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그린 적중봉소(賊中封疏), 일본의 관직 명칭과 지리와 물산에 관한 적중문견록(賊中聞見錄), 포로의 심정과 포로들에게 보내는 당부를 적은 고부인격(告俘人檄), 일본의 풍속을 적은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일기체로 기술한 체험과 한시(漢詩) 31수가 담긴 섭란사적(涉亂事跡)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내산서원(內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간양록』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기준에도 충족된다. 『간양록』은 국가보물로서 역사적 가치(시대성과 역사적 사건 관련성), 예술(문학)적 가치(보편성과 독창성), 학술적 가치(후대의 연구자료) 외에 16세기 일본 전쟁포로의 체험기록으로서 희소적 가치(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

나는 내년부터 강향의 훌륭한 삶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강향정신계승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를 영광군 내 초·중·고·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소중한 기록유산으로서 『간양록』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인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마땅히 지정되어야 한다. 문화재청과 관계기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전향적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

기고

### 불조심 화재예방, 우리집 안전으로부터 시작

이중희 화순소방서장



울긋불긋 오색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에 접어들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건조한 날씨의 기상 상황과 난방기구 사용 및 화기 취급의 증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불조심 캠페인 전개, 언론 매체·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각계각층 안전교육 등 분주해지는 시기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평균 11,272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9.5%로 가장 높고, 전기적 원인 23.9%, 기계적 원인 10.5% 순으로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에서 27.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야외 17.6%, 자동차 11.8%, 임야 5.17% 등이다.

이렇듯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화재발생 통계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자.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부착해야 한다.

둘째, 전열 기구 등 난방기 사용주의·관리다. 전기장판은 접하거나 장판 밑으로 전기 코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도록 한다.

셋째, 외출 전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갔는지, 라이터 등 화기도구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였는지, 보일러실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등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화목 보일러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안전관리를 하자. 보일러에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며,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와 주변의 빨나무 등 가연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는 안전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한자성어처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자.

기고

###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김대중 장흥군청 건설도시과장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을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



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치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의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b>호남신문 i-honam.com</b>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b>	<b>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b>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